

26년 포교경험 '책으로'

성일스님 '신도포교지침서' 하

사찰 특별행사 중심 구성
분야별 포교서 계속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포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일선 사찰의 모든 스님들에게는 하나의 화두나 마찬가지다. 포교는 그만큼 어렵고 또 딱히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일스님(경기 화성 신홍사 주지)이 10년 기도 회향 기념으로 펴낸 〈신도포교 지침서 ②〉(불광출판사)는 이미 나온 상권과 함께 26년간 포교일선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 졌다는 점에서 포교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로 주목받을 만하다. 하나의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한 흔적과,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안하기 위해 애쓴 진지한 노력이 엿보인다.

상권이 일반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는데 반해, 하권은 건축불사, 범종불사 등 특별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각종 특별행사에 관한 내

용은 성일스님이 특별행사를 봉행하며 체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사찰에서도 제반 행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성은 성일스님의 10년 기도 회향에 대한 소감과 포교경험담이 제1장에 수록돼 있으며, 2장은 천일, 이춘일, 삼천일 기도 입재 및 회향법회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3장에는 법당 기공식과 상량식, 봉불점안식 등 건축불사에 관한 내용이, 제4장에서는 불탑을 세우는데 있어서의 모든 절차와 형식 등 특별불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5장 특별행사편에서는 불교대학과 관련한 각종 행사 및 전법도량 순회 법회, 결혼식 및 각종 시상식에 대해, 6장에서는 성인 수련대회와 관련한 안내와 자료집을 제시하고 있다.

성일스님은 이미 펴낸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에 이어 〈청소년 포교지침서〉와 〈기도는 뭘 때까지 하면 된다〉는 제목의 신행지침서도 연내 펴내, 포교 전반에 관한 시리즈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불·보살 모든것 알기쉽게

'100문 100답 - 불보살·신중편'

보통 불상이라 하면 부처님 상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불 배상은 보살상이나 신중상, 심지어는 명왕(明王)상까지 포함된다.

고명석씨(대원정사 편집장)와 고광영씨(불교시대사 편집부)가 공동으로 펴낸 〈100문 100답-불·보살·신중편〉은 상·하 두 권으로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알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불·보살·신중들의 이름과 모습을 정리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과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은 팔부중(八部衆·신라말에서 고려초 우리나라 탑신의 기단부나 부도에 조성된 신)에 대해 진전사지 3층석탑과 선림원지 3층석탑의 기단에 등장하는 팔부중 하나 하나를 타본과 사진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 '부처가 되는 것인가' '부처님을 믿는 것인가' '오늘날 보살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와 불교는 만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을 통해 불교 신앙과 불교문화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상권 '불·보살의 세계'에서는 석가모니불 등 18불과 각종 보살, 십대 제자에 대해, 하권 '신중의 세계'에서는 각 신중 및 신중단에 참여한 중국과 한국의 주요 토속신들과 전통신앙, 유마거사 등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한명우 기자

고명석·고광영씨 공저
탄생배경·특징 등 정리



'신라 불국토' 만든 원광·안홍·자장스님

신종원교수 '신라 최초의 고승들'

신종원 교수(강원대 역사교육)가 쓴 〈신라 최초의 고승들〉(민족사)는 아도화상의 불교 전도와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된 불교가 신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원광·안홍·자장 등 세 스님을 조명하는 책이다. 그러면서 불교가 기층종교인 사머니즘과 충돌하면서 왕실의 의해 수용되는 과정과 세 스님의 삶과 당시 불교를 복원하고 있다.

원광·안홍·자장스님은 신라 진흥왕 후반기부터 선덕여왕 시절에 활동했다. 당시 신라 최고



의 지식인이었던 이들 스님들은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대외교섭을 하고하며 외교적인 역할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알 날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을 없애 주는 역할까지 하였다. 또한 교리연구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신라사회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피상적인 이해수준에 머물러 있던 불교를 끌어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원광·자장스님은 중국의 고승전에 신라 사람으로 최초로 전기가 쓰여진 인물. 그러나 이들 전기는 정확한 생년 연대나 가계(家系) 등 갈피를 잡기 어렵고, 안홍스님에 대한 사료 역시 부족한 탓에 이 책은 세 스님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렇지만 교리·교화적인 측면보다는 시대상황과 사회활동을 정확히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값 6천5백원. 한명우 기자

독일 국제도서전서 대장경 영인본 전시

팔만대장경이 지난 7일부터 6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전시됐다.

세계 최대 규모,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는 1백여개국 9천여출판사가 참가해 30여만권의 각종 도서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현암사 문학동네 해님 등 17개 출판사가 참가해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 영인본, 박경리의 토지 등 1천5백여권의 도서를 전시했다.

마치 수필 읽듯 부처님 가르침 읽는다

반영규씨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솔바람)는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통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이다. 반영규(지바의 소리대표) 저. (아함경)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우면서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전으로 꼽힌다.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기억에 의해 정리·집성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책

▲기도와 영험 이야기=현 지장불교 문화대학 학장인 심종선씨가 팔만대장경에 있는 신승전, 비구니전, 전등루, 선문염송과 일본의 본조승전 및 각 사찰의 사지(寺誌) 등에서 신승들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엮은 책. 방광하는 이야기, 영가 천도 이야기, 병자 치료 및 소원성취 이야기 등 불자들이 직접 겪은 수기를 한데 묶었다. (법연, 8천원)

▲노자 도덕경 제멋대로 읽기=해탈스님(울산 월은사)은 노자의 도사상을 극찬한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상(無常)한 도'로 여긴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그저 인(因)으로 연(緣)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자사상을 불교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묻어난다. (출판시대, 7천원)

▲금강산=분단 반세기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길에 동반해도 좋은 금강산 탐승과 답사의 길잡이가 될 안내서.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물론 자연과 지질, 역사와 문화를 요점 정리했다. 만물상, 구룡연 등 금강산 4대 탐승 명소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도 이 책의 특징. 유희준씨가 엮었다. (학고재, 1만3천원)

맑은 영혼을 위하여

삶과 죽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책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선행과 불러남 없는 정진, 그것은 곧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을 말한다. 죽음도 삶도 지금 여기에 있으며,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다.

윤회와 영가천도, 경전에 나타난 효사상과 인과법까지 살피고 불자들의 신행체행 기도 함께 실어 삶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느끼도록 배려했다. 생활 속의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쉽고 재미있게 엮어 읽기에도 편하다. 정호스님은 현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토방, 7천원>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

지금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는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중금증을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저자 원연스님은 일본 오사카에서 관음사를 창건해 재일동포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있다. <운주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일	여시아문
4	화두, 해능과 세익스피어	김용욱	통나무
5	산승의 향기	이학중	운주사
6	불교입문	조계종원장부	조계종출판사
7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용	효림
8	번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법륜	토방
9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10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철외	예문서원

구입문의: (02)737-0695

友耕 환정섭 大法師 華甲기념

奉 論·文·奉·呈·法·會 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로 불교 포교와 교육사업에 평생을 바치고 계시는 「友耕 환정섭대법사」님께서 금년에 화감을 맞이하게 되어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이 조그만 정성을 모아 스승의 화감을 기념하는 뜻에서 綺山 林錫珍 대종사 문집을 발간 봉정하여 그간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저 다음과 같이 봉정법회를 봉행코저 하오니 뜻깊은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앙망하나이다.

◎ 일시: 불기 2542년 10월 25일(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증명: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태고종 前중정 안덕암 대종사

◎ 고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큰스님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법 흥 큰스님
대한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이사장 정 각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조실 송 산 큰스님
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문자 박사 [무순]

◎ 행사문의: 02)962-1666, 969-2410

■모시는 이: 綺山 논문 봉정위원회 위원장 석성륜 합장
綺山 문도회원 한정섭 김영태 김두성 합장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30년의 전통” 생불교 운동의 기수

한국불교통신대학 대학원 학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일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1. 모집 학과**
 - (1) 대학: 불교포교학과, 불교교육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 (2) 대학원: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 2. 입학 자격**
 - (1) 포교학과, 불교교육과는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 (2) 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 자.
 - (3) 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 (4) 대학원 과정은 불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 3. 교육과정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 4. 전형 방법**

1차 서류심사
- 5. 제출 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반 명함판사진 3매
- 6. 원서교부 및 전형**
 - (1) 중앙교육원 02)969-2410, (FAX) 02)969-4981
 - (2) 연수원(상락향 수도원) 0356)584-0657
 - (3) 부산교육원 051)704-0798 (4) 남부산교육원 051)208-5327
 - (5) 대구교육원 053)743-1178 (6) 구미교육원 0546)455-1068
 - (7) 충북교육원 0431)223-9026 (8) 천천교육원 0443)46-3023
 - (9) 안산교육원 0345)83-2667 (10) 포천교육원 0357)32-4565
 - (11) 진해교육원 0553)546-4186 (12) 상주교육원 0582)536-2195
 - (13) 하와이교육원 808)943-8015
-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 8. 특 전**
 - (1) 재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 (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 (2) 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합.
 - (3) 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품음.
-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02)962-1666, 969-2410